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秋日隨想

④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붓다 上

〈그리스인 조르바〉와 〈오디세이아〉로 잘 알려진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를 주목하는 데에는 작가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라고 불릴 만큼 그는 문학으로 치열하게 구도(求道)한 자유인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의 묘비명이다. 어떻게 하면 그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영혼의 자유에 바쳐진 그의 구도의 내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중해의 남쪽, 에게 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손꼽히는 크레타의 이라클리온. 항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성루에 그의 묘지가 있다. 정교회에서 파문당한 이들만이 쓴다는 나무십자가는 이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선 그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것만 같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태어날 당시 크레타는 그리스 본토와는 달리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다. 오토만 제국에 의하여 1669년에 점령된 후 200년 넘게 터키의 통치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터키인들에게 교수당한 기독교도들에 나아가 죽은 자의 발에 입 맞추어 경의를 표하게 하면서 그것을 잘 보아 두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누가 이분들을 죽였나요?"

"자유가 죽였지." 여덟 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함축적이었다. '자유'는 그의 명제가 되었다.

"나는 자유를 찾아야 했지만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나는 거칠고 쉴 곳 없는 자유의 오름길에 올랐다. 우선 터키인들로부터 찾아야 하는 자유, 그 다음에는 내면의 터키인인 교만과 악의와 시기로부터, 공포와 게으름으로부터, 눈을 멀게 하는 헛된 사상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과 흠모를 받는 대상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찾으려는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영혼의 자서전〉1권 p85

그가 대상으로 한 자유는 첫째 터키인들로부터 찾아야 하는 자유, 다음에는 내면의 눈을 멀게 하는 헛된 사상과 우상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한 자신과의 선전포고였다. 스스로가 밝혔듯이 그의 최초의 큰 욕망은 '자유'였고 두 번째 욕망은 '성직'에 대한 것이었다. 어린 니코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으며 영웅성을 지닌 성자를 완전한 인간이라고 보았다.

어릴 때 그는 장난감을 팔아 '성인의 전기'를 사서 읽다가, 영혼을 구하려고 성인들이 치렀던 온갖 시련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한다. 특히 '성 요한의 전설'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난 아토스 산으로 가서 성인이 되겠어." 엄마 몰래 부둣가에 나간 꼬마는 선장을 붙들고 배를 태워 달라고 졸랐다. 실제로 그가 아토스 산을 찾은 것은 31세 때였다. 그는 40일간 작은 암자에 머물며 단테 복음서와 불경을 읽었다. 그곳에서 손금을 봐 주던 어느 수사가 "당신은 늙으면 성직자가 되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는 갓 태어났을 때 아기를 불빛에 살피던 산파의 말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언젠가 이 아기는 주교님이 될 테니 내 말을 잊지 말아요" 니코스는 신성한 영혼의 날로 손꼽는 2월 18일, 금요일에 태어난 자부심이 대단했다. 산파의 그 예언은 그로 하여금 일찍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지도자를 꿈꾸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지 짐작해 본다.

> **카잔차키스는 종교적인 삶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는 성향이 강했다. 작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육체를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聖變化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그는 아토스 산에서 우연히 만난 시인 앙겔로스 시켈리아노스와 함께 여러 수도원을 순례하며 종교의 허위와 성직자의 가면을 발견하고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것을 약속한다.

"우린 기독교의 고행을 개선해야 해." 두 사람의 의견은 일치했다.

"그리스도가 웃게끔 만들어야 할 때가 왔어. 그래, 꼭 그래야지! 고뇌와 울음, 십자가는 이제 그만이야. 그리스도는 그리스의 힘세고 행복한 신들을 함께 모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모두 동화시켜야 해. 유대인 그리스도가 그리스인이 될 때가 되었다고."

〈침묵〉의 작가 엔도슈샤쿠가 일본인 그리스도를 생각했듯이 그는 그리스인 그리스도를 염원했던 것이다.

1902년,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아테네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윈의 진화론과 지질학 등 과학의 영향으로 그리스정교회 신앙을 멀리하게 된다. 1908년 파리로 유학하여 앙리 베르그송의 생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위시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읽는다. 기독교를 비판하며 비합리주의의 옹호자 니체를 만나 초인(超人)사상을 알게 된다. 그의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에 드러난 신에 저항하는 자유는 니체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그를 불교로 이끈 사람도 니체였다.

"나는 붓다에 탐닉했었다. 내 마음은 노란 해바라기요, 태양은 붓다였다"고 술회하며 "나는 방안에 틀어박혀 두툼한 입문서를 밤낮으로 파고들며 붓다의 설법과 가르침을 공부했다"고 〈자서전〉에서 밝히며 이런 글귀도 적어 놓았다.

"… 네 가지 숭고한 진리(四聖諦)가 내 머리에 어렴풋이 떠오른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 가둔 그물, 우리들은 다시 태어날 터이니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목마름을 이겨내고, 욕망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뱃속을 비우기로 하자. '나는 죽기를 원한다' 거나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마라.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마음을 욕망이나 희망보다 높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존재의 극락을 누리리라 그대는 재생의 수레바퀴를 손으로 잡아 멈추리라"

욕망이나 희망보다 '마음'을 높이라는 그 마음에 나는 방점을 찍는다. 1922년(39세)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하면서 희곡 〈붓다〉를 집필하기 시작할 때였다. 그 무렵 갑자기 자신의 "얼굴이 부풀어 올랐고 눈은 퉁퉁 붓더니 찢어진 구멍만 남아 무엇을 보기가 무척 힘들었다. 거울 앞에 서니 끔찍한 살의 가면이 얼굴을 덮었고 피부가 터져 누르스름한 진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였다"고 자서전에 쓰고 있다. 프로이트의 제자 빌헬름 슈테켈 박사를 찾아가서 〈붓다〉를 집필하고 있다는 것과 프리다를 만나서 밀회를 약속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당신이 걸린 건 '성자의 병'이라고 부르죠. 갑자기 색욕의 악마가 씌어져서 여자와 자야 되겠다는 욕구를 느낀 성자가 테바이의 사막을 떠나 달리고 또 달렸지만 성문을 지나가려다 몸을 내려다보니 문둥병이 번지는 중이였어요. 하지만 그건 나병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걸린 것과 똑같은 병이었지요. 불교적 세계관에 빠진 당신의 영혼, 이른바 영혼이라는 것은 여자와 자는 것을 대죄(大罪)라고 믿죠. 그런 까닭에 그것은 육체가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요. 당신이 프리다를 떼어 놓고 빈을 떠나기만 하면 당장 나을 병이예요."

그러나 니코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과학적인 동화일 뿐이라고 고집하면서 한 달을 더 머물렀지만 가면은 녹아버리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그 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침대에서 나왔다. 정거장에 도착하여 거울을 보았을 때의 감격이란! 부어오른 얼굴은 완전히 가라앉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붓다〉보다 그 즈음 〈신을 구하는 자〉를 먼저 탈고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작품에는 불교사상이 많이 녹아있으며 〈신을 구하는 자〉는 책에 나타난 무신론 때문에 그리스 당국의 위협을 받았다. 그 작품은 나중에 장편 〈오디세이아〉로 다시 태어났다. 70세에 쓴 〈최후의 유혹〉은 신성모독으로 로마 교황으로부터 금서 처분되고 그리스 정교회는 니코스를 파문했다.

그는 예술이나 사상보다는 종교적인 삶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성향이 강했다. 스스로도 자신이 소중하게 다루는 작품의 주제는 '신(神)에 대항하는 인간의 투쟁'이라고 밝혔듯이 그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육체를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성변화(聖變化)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입과 배만 달린 몸을 끌고 다니며 먹고 똥을 누고 또 먹는 구멍만 둘 달린 하찮은 누에가 갑자기 먹은 것이 모두 비단실이 된다는 변화를 뜻한다. 성변화는 〈붓다〉라는 작품에서도 언급된다.

희곡 〈붓다〉의 무대는 20세기 초의 중국이다. 양쯔 강의 물이 불어나면서 마을과 주민들이 모두 수장될 위험에 직면한다. 홍수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은 여러 양상을 펼치며 "사람 살려"를 외쳐대지만 허사다. 프롤로그에서 시인은 '고통, 추악, 죽음'에 선전포고를 한다. 그러나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무존재(無存在)의 문'을 열고 들어갈 〈붓다〉뿐이라고 한다.

주요 등장인물은 창 어르신, 그의 아들 창과 딸인 메이링, 그리고 마법사이다. 조연인물로는 창의 아내, 농부, 악사, 붓다와 그의 제자 등이 있다. 마법사는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것 -양쯔 강, 자살, 격정, 붓다, 영웅주의, 인종(忍從)이 미학적 상상력의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인'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한다.

카잔차키스는 우리에게 '삶은 무(無)로 끝나는 하나의 꿈이 전부'라고 말한다. 창 어르신은 연극이 진행되면서 삶에서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완전히 혼자 양쯔 강 '붓다'과 대면한다. 죽음이 임박하자 평온한 가운데 양손을 벌리고 홍수 '붓다'를 영접한다. 강물은 이미 문지방을 때리며 포효한다. 어르신은 양팔을 접고 절하면서 "환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무대의 막이 내린다.

여기서 강은 '붓다'이고, 마지막 홍수는 '붓다'의 해방을 의미한다. 카잔차키스는 물질의 영(靈)으로서의 성변화를 '해방의 붓다'라 칭한 것이다. 〈붓다〉에서 그의 제자 모갈라나가 외친다.

모갈라나 - 나의 동포여, 손뼉치고, 고개를 들고 외친다. 아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래한다. 사랑하는 허상들이여, 당신들 또한 노래하라. 나와 함께 노래하라.(모두 함께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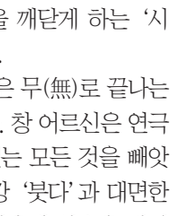
"황금 누에처럼, 꽃 없는 침묵의 가지에 붓다는 체류하였다.

그는 모든 잎을 먹었다. 그는 뽕나무 잎을 모두 먹었다.

그는 모든 잎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명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먹거나, 냄새 맡거나, 만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의 오장육부는 비었고, 그의 심장은 가벼워졌다. 그는 황야의 모든 마음과 공기가 되었다. 그는 마음과 공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볍게 흩어졌다." -희곡 〈붓다〉 中



맹난자 / 수필가

www.mahaedu.org

환자를 위한 기도훈련 및 임종의식 집중수련

불교호스피스 바르게 알고, 배우고, 행하는 실천수행의 장으로 스님을 초대합니다.

- **임상기도, 임종의식, 바르도의 이해**
- **임상기도 수련**
  - ◇진언(투병, 죽어감에 적합한 진언)
  - ◇경전, 기도(임상기도 / 임종의식)
  - ◇임상기도를 위한 접근방법(Ⅰ~Ⅳ)
  - ◇환자의 영적고통에 대한 접근방법(Ⅰ~Ⅲ) - 이론
- **임종의식 수련**
  - ◇임종자의 왕생을 위한 안내
  - ◇임종자의 재생을 위한 안내
  - ◇임종기도 차제
  - ◇임종 사후에 대한 안내
  - ◇죽음과 입관에 대한 준비와 안내
- **Second 프로그램**

- 교육기간 : **2017년 10월 22일(일) ~ 10월 26일(목) 4박 5일**
- 교육대상 : 승려 (승려연수 30점 인증)
- 교육정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접수마감 : **2017년 10월 16일(월)**
-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 교 육 비 : 60만원(학인스님 20% 감면)
- 접수문의 :
  TEL 052)255-8522, 8524
  H·P 010-8848-8522
  E-mail : mahabodhi@daum.net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주관 · 주최 : **(재)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교육원**

제5회

묘엄불교문화상 공모

고(故) 세주 묘엄 스님의 뜻을 기리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7년 10월 1일 ~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 (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문화, 불교실천, 불교학술 등의 분야로 나누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로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 510-2076 / 팩스 051) 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7년 12월 24일 세주 묘엄 스님 추모 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